

4) 대한제국의 도시건축 기념비

원각사10층석탑은 백담이라 불리면서 한양도성 인¹⁷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상이었다. 이 탑은 1900년을 전후로 서울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기행문에 늘 등장한다. 1901년 서울을 방문하여 사진과 함께 《SEOUL, THE CAPITAL OF KOREA》를 남겼던 버튼 홈스 역시 서울구경에 나서서 좁은 오솔길의 미로에 감추어져있던 터가 공원용 용지로 계획되어 정돈되면서 원각사탑이 도시공간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원각사터와 백담은 오래된 절터이고 익숙한 불탑이지만, 1896년 즈음에 총세무사 브라운의 건의로 근대적인 도시공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19세기에 그려진 경기감영도에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인왕산의 능선을 배경으로 돈의문과 경기감영과 의주로의 풍경, 그리고 영은문(迎恩門)과 무악재 고개에 이르는 풍경은 도성 밖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경관이었다. 영은문이나 모화관(慕華館)이라는 편액에 담긴 뜻과 같이, 조선시대 내내 명나라 청나라와의 종속적인 외교관계를 보여주던 장소이다. 1898년 돈의문 밖 영은문과 모화관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이 건설되었다. 이 기념비는 대한제국이 청나라를 비롯한 열강들에게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기념비로서 독립협회의 주관으로 고종 황제의 내탕금과 백성들의 성금으로 건설되었다. 당시 독립협회의 총무였던 서재필의 스케치와 러시아건축가 사바친의 설계, 그리고 심의석의 공사로 건립되었다. 개선문의 양식을 따라 석재로 건설된 조적건축물은 그 이전의 일주문 형식의 영은문과 대조적이다. 편액에 새겨진 독립문이라는 글씨와 태극 문양은 근대 도시경관으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다.¹⁸

1902년은 고종 황제가 즉위한지 4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육조거리의 남단 기로소 앞에 기념비전이 건설된다. 1897년 명성황후의 국장을 치르면서 경복궁에서 경운궁에 이르는 대로가 뚫렸고, 기념비전은 이 대로와 종로가 교차하는 자리에 새로운 도시중심을 기념하는 시설로서 세